

주요 종단 총무원장 신년사

민족화합·국운융성 새시대 열어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민족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무지와 탐욕 그리고 질시의 편협한 마음을 한 순간에 버리고 이해와 자비의 맑은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나눔과 베품 실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나눔과 베품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실의와 절망에 빠져있는 이웃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대통령 선거 발전계기 삼자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한 역동성을 활용, 국가의 발전 동력으로 삼아 나간다면 국가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남북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평화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더 크고 넓고 둥근마음으로 살도록

진각종 총무원장 효암대정사



여와 화합정신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 넓고 크고 둥근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맡겨진 임무를 회향해야 할 것입니다.

중생고통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야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스님



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함께 사는 삶을 살도록 새해 불자들은 투철한 믿음으로 자비와 이해를 등불로 삼읍시다. 작은 샘물이 모여 큰 연못을 이루듯이 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믿음의 뿌리를 건실하게 합시다.

특별기고



일지스님 경학회 회장

구랍 23일, 68세의 생일을 맞은 아키히로 일왕은 '나 자신 건무(桓武)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명왕(武寧王)의 자손이라고 '속(續)일본기'에 기록돼 있는 사실에, 한국과의 인연을 느낀다'고 발언. 일본 천황가에 백제인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간 고대 한국이 일본에 끼친 불교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은 방대한 관련 사료와 문화의 걸

불교가 사상·문화 전수

중을 거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신성한 혈통을 내세우는 일본의 국가적 상징인 천황이 자신의 혈통이 한반도와 관련 있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일 양국의 언론이 이를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도 문화나 종교의 차원이 아닌 가장 인간적인 차원에 속하는 혈통의 유래를 일왕 자신이 직접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 먼 과

거로부터 반복된 한국과 일본의 숙명적인 애증의 중심에 불교가 있다. 역사시대의 한일교류는 바로 불교를 통해서 문화와 지혜의 꽃을 피웠다. 한일관계 이면에 자리 잡은 공대한 역사의 면적은 바로 한국과 일본의 불교사의 면적인 것이다.

일본불교의 공식적인 전래는 538년 백제 성왕이 '불상과 경론을 일본에 보내왔으며 불교가 제법(諸法) 가운데 가장 수승한 가르침임을 알리는 글을 전했다'는 <일본서기>의 기록과 여러 고문헌에 의해서 확인된다.

과 예술을 전한 나라는 백제뿐만이 아니어서 고구려의 스님 혜자(慧慈)는 오늘날까지 성인처럼 받드는 성덕 태자의 스승이었으며, 신라 원효계의 학승들은 일본에 파견되어 일본인의 사유방법을 형성시킨 화엄사상의 교사로 활동하였다.

나는 지난해 11월 중순 여름 동안 교토와 나라의 큰 절들과 불교계통 대학과 연구소를 방문한 일이 있다. 나라'라는 지명 자체가 한국어의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를 의미하며 이 나라라는 지명은 원래 범어에서 인간

에 눈을 뜬 일본은 7-8세기경에 이르러 고대 천황제라는 율령체제(律令體制)를 정비하고 국가진호(國家鎮護)를 추구하는 국가불교를 확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대 한국에서 건너간 스님들의 지도로 세워진 수많은 가람들과 불교교육기관들은 현대까지 일본불교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단언하건대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불교를 통해서 서로를 발견하고 교류하기 시작했으며 이 모든 것은 불교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필자가 언급한

역사 바로 찾기 노력을

내용은 전혀 '감춰진 이야기'가 아니다. 1984년 9월 당시 일본수상 나카소네는 상고시대의 한일교류사에서 '한국은 스승이며 일본은 생도'라는 명제로 확인한 적이 있다. 이 명제는 이미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누누이 외쳐 온 것으로 새로운 것도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간단한 명제의 이면에는 매우 광범위한 시간적, 공간적 면적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교계와 학계는 그간 몇 권의 번역서와 일본 자료를 백인 논문 몇 편으로만 만족할 뿐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너무 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이 명백하고 준엄하며, 광대한 역사의 면적과 글목을 우리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독하며 오늘의 화두로 되살려 새로운 세기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창조적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日 천황가와 백제인 혈통

일본은 불교문화와 사상적 지력을 갖춘 백제로부터 불교를 전수 받은 이후 비로소 문자와 미술, 사원 건축, 먹과 종이의 사용법 등을 비롯한 문화와 기술을 갖게 된다. 불교를 통한 문화와 기술의 전수는 현재까지도 일본불교 문화의 정수이며 동시에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나라(奈良) 동대사와 법흥사에 잘 남아있다. 동대사와 법흥사를 세운 스님들이 바로 백제계 도입인(渡日人)의 후손인 료벤(良辨)과 일본불교사에서 보살로 추앙받는 교기(行基) 스님이며 법흥사는 고구려에서 일본에 파견된 담징 스님의 불교예술이 면면히 살아있는 거점이다. 고대일본에 불교의 학문

이 사는 곳', 즉 인간주처(人間住處)를 의미하는 'nara'에서 유래한다. 그만큼 유명한 불교 도시, 나라의 긴테츠 전철역 앞에는 백제계의 스님, 교기(行基)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교기 스님은 국립사찰에는 가볼 수조차 없었던 민중들을 위하여 몸소 다리를 놓고 보시하며 민중을 위한 절을 세운 민중의 큰스님이다. 항상 수천, 수만명의 신자들이 스님 주변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교기는 조정으로부터 불온한 인물이라는 혐의를 받을 정도였으나 이미 생전에 보살이라는 칭호로 불리웠던 인물 이 바로 그 사람, 교기인 것이다. 불교의 전래에 의해서 비로소 학문과 문화

청송 영천암 미혼모시설 추진

정일스님 초청 백고좌법회

경북 청송의 작은 암자 영천암(주지 승만)은 구랍 22일 '미혼모의 집' 건립발원을 위한 백고좌법회를 열었다.

이번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 초청법회를 시작으로 영천암은 향후 미혼모를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주지 승만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법회 공덕으로 미혼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고통속에 헤매는 미혼모들을 부처님의 바른 법으로 인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백고좌 법회를 꾸준히 열어 지역에 불심을 심겠다"

고 밝혔다. 이어 정일스님은 법문을 통해 "승만스님의 원력이 진실되고 간절하니 모든 불자들이 스님의 뜻을 받들어 보시행을 실천하라"면서, "육바라밀 행을 생활속에서 꾸준히 행하는 참된 불제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승만스님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포교 활성화를 위해 미혼모를 위한 사회사업과 불자들을 위한 도시설 운영을 발원하고 있으나 불서와 법문 테이프, 법문 비디오, 불교관련 CD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54873-2724

청송=천미희 기자

울산교육원 동문회 중고생 17명에 장학금

울산불교교육원 동문회(회장 김민회)는 구랍 20일 울산 남구 신정동 불교교육원 4층 제1강의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동문회는 경주 경희학교에 재학 중인 이충걸군을 비롯해 울산시교육청에 의뢰해 추천받은 17명의 중·고교생에게 각각 20~30만원씩 총 4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제19기 졸업식에 앞서 가진 장학금 수여식의 기금은 지난 11월 28일 하루 동안 문예회관 내 센터 레스토랑에서 연 일차집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한편 장학금 수여식에 이어 55명의 제19기 졸업식과 다도초급반(13명) 수료식도 함께 거행했다. 김재경 기자

전주 대원사 삼존불 봉안

전주 대원사는 구랍 24일 선회종 종정의천스님을 증명법사로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여래종 종정 인왕, 미주 불교 종정 금타, 원각종 종정 혜철, 조동종 총무원장 해광스님과 용화불교 범일교령을 비롯 재가불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해인사 신행테이프 제작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주지 세만는 초발심자들의 신행을 돕기 위해 '불교입문' 테이프를 제작, 판매한다.

총 6개로 구성된 '불교입문' 테이프는 해인사 대덕스님이 직접 강의한 제1회 불교입문 강좌의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조계종 신도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불교의 수행법(유나 원승스님), 불교란 무엇인가(지오스님), 불자의 신생활(혜봉스님), 불교와 인생(원생스님), 생애와 기쁘고(원철스님), 절을 찾아서(관암스님) 등 불자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김재경 기자



전주교도소 성불회 '송년의 밤'

전주교도소 불자 교도관들의 모임인 성불회(회장 김도상)는 구랍 26일 전주시 도란도란뷔페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교도소 성불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한편 대불청 전복지구(회장 정인택)는 구랍 20일 전주교도소 대강당에서 회원 및 재소자 불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교육원 수행학교 수료식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은 구랍 23일 김해 은하사에서 200여명의 교육생이 동참한 가운데 제1기 불교수행학교 수료 및 수료법회를 가졌다. 227명의 입학생으로 9월 3일부터 시작된 불교수행학교는 4개월 동안 18명의 법사 스님을 초빙, 불교의 수행에 관한 강의를 마쳤다.

Advertisement for Gaysan Buddhist Relief Society (가야산 범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ell and text: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and '장인 정신 鐘宗社'. Contact info: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Weight: 3,300kg.